# 세계 최초 3D 프린팅 주택 단지

판잣집이나 천막처럼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하고 아늑한 주택을 꿈꾼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주택 단지가 멕시코에서 건설되고 있다.

지난 12일 CNN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남동부 타바스코주에 건설 중인 이 주택들은 놀랍게도 대형 3D 프린터 '불칸2' 로 단 24시간 만에 '찍어낸' 집이다. 현재까지 2채가 세워졌으며 내년까지 총 50채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3D 프린팅 주택이라고 해서 대충 찍어낸 것이 아니다. 각 주택에는 두 개의 침실과 부엌, 거실, 화장실이 구비됐으며 지역의 높은 기온을 견디기 위해 공기 흐름 개선을 위한 구부러진 벽과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택은 라바크리트(Lavacrete)라고 불리는 특수 콘크리트 혼합물로 만들어져 튼튼하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곳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 '뉴스토리' 이다. 전세계 빈민들을 위해 싸고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이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건축 대신 3D 프린팅 주택을 그 대안으로 여기고 멕시코 빈민들을 위한 타바스코주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택 건설에 드는 초기 비용은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주택 1채 당 건설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4,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리 측은 "하루 3달러도 못 버는 멕시코 빈민들에게 이 집이 제공될 것" 이라면서 "땅은 멕시코 주정부가 기부했으며 곧 전기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제공될 것" 이라며 "뉴스토리는 2014년 설립 이후 멕시코,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등에 2700채가 넘는 집을 공급했다. 3D 프린팅 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이라고 전했다.

# 6,000만 달러 마약 실은 '마약 잠수함' 또 적발

남미에서 코카인을 실어나르던 일명 '마약 잠수함' 이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 11일 페루 정부는 탈라라시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몰래 코카인을 운반하던 마약 잠수함이 나포됐다고 발표했다.

페루 당국에 따르면 이 마약 잠수함은 에콰도르를 출발해 멕시코로 이동 중이던 것으로 추정되며 마침 이 지역을 순찰 중이던 페루 해군에 적발됐다. 당시 잠수함 안에는 콜롬비아인 2명, 에콰도르 1인, 멕시코 1인 등 총 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선체에서 총 2톤 가량의 코카인이 쏟아졌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다.

페루 당국자는 "해군 장교들이 잠수함에 내려가 마약으로 가득찬 여러 개의 비닐봉지를 수거했다." 면서 "4명의 용의자들은 모두 수도 리마로 이송돼 사건의 전말을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마약을 실어 날라 '나르코 잠수함' 이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통상 기존 선박을 개조해 제작된다. 중남미의 거대 마약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등 북미로 마약을 운반하는데 잠수함은 이제 심심치않게 적발될 만큼 대중화됐다.

특히 지난 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까지 온 마약 잠수함이 적발돼 놀라움을 안겼다. 콜롬비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잠수함은 총 3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싣고 7,690㎞ 라는 먼 거리의 대양을 헤쳐오다 덜미를 잡혔다.

# 엄마 대신 운전 면허시험 본 아들

나이 많은 엄마에게 운전면허증을 선물하려던 남자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근 브라질 북부 혼도니아주 노바무툼 파라나에서 벌어진 일이다.

43세로 알려진 이 남자는 엄마로 위장하기 위해 엄마가 즐겨 입는 블라우스와 치마을 입고 운전면허 실기시험장을 찾았다. 엄마처럼 보이기 위해 얼굴화장까지 곱게 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도착한 그는 엄마의 신분증을 내밀고 접수를 했다. 신분증을 받아본 직원은 뭔가 미심쩍었지만 일단 접수를 해줬다. 그리고 남자는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든 접수처 직원이 경찰에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가 남자가 남자라는 사실을 금방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의 엄마는 운전면허신청 등 실기시험 전 절차를 모두 직접 했다. 그리고 실기시험만 남겨둔 상태에서 아들이 엄마 대신 여장을 하고 시험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엄마가 공범으로 의심되지만 남자는 "엄마는 아무 것도 모른다. 죄가 없다." 고 항변했다.

경찰은 신분위조와 사기 혐의로 남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남자는 유치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남자의 엄마는 브라질 다른 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엄마와 연락을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엄마를 대신해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응시한 '효자' 라는 제목으로 중남미 각국 언론에 보도됐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